

달집 태우며 지역 안녕 · 풍년 기원

무주군, 6개 읍면 38개 마을서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달집태우기 · 달맞이 등 다채롭게 진행

무주군에서는 11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12일까지 6개 읍면 38개 마을에서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일 무주읍 남대전에서는 주민 등 5백여 명이 함께 달집태우기와 달맞이, 약방 나누기에 동참하며 주민 안녕과 풍년, 그리고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읍발전협의회(회장 김성용)와 청년회(회장 박희환)가 주관해 직접 10m 높이의 달집을 쌓고 태우기까지 진행해 장관을 연출했다.

같은 날 안성여울리센터 인근 공터에서는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면청년회(회장 이병화)가 주관하는 풍물단 행진과 효자교 밝기, 달집태우기, 망월제 등이 진행됐다.

부남면에서도 청년회(회장 김호연)가 주관하는 풍년기원제와 달집태우기가 부남체육공원에서 펼쳐졌다. 적상면 신대마을(서창)과 내창마을 산제당에서는 산신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달집태우기에 함께 한 주민들은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니까 가슴이 뚫다"라며 "불길을 따라 액운은 물러나고 집집마다, 무주군 곳곳마다 건강과 웃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12일에는 부남면다달방아액막이놀이보존회(회장 유재두)에서 주관하는 액막이놀이시연이 다달방아액막이놀이전시관 앞에서 진



무주군에서는 11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12일까지 6개 읍면 38개 마을에서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행되며 무풍면(철목새마을회, 회장 이인순)에서는 상그릴라 레스토랑에서 주민단합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적상면 청년회(회장 이희재)에서는 오색단풍 이야기센터에서 웃놀이와 부럼깨기, 소원문달기 등 민속놀이와 풍년기원제, 사물놀이 등을 진행하며 하가마을(마을회관)에서도 웃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실천면 평지마을과 보

안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웃놀이와 풍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6개 읍면 38개 마을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어 한 해의 첫 보름이 달이 치는 명절을 함께 즐겼"이라며 "같이 나누고 즐긴 정월대보름 행사가 2025년 한 해 복을 부르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기자

소진영 작가 기획초대전 '햇살 가득한 날에'

전주한지박물관, 4월 12일까지 개최

전주한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1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소진영 작가의 '햇살 가득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주한지박물관은 2025년 새해 첫 전시로 '빛'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따스한 희망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지는 그 자체로 고유한 질감과 빛의 투과성, 그리고 섬세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지의 특성은 빛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시키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소진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햇살이 내리쬐는 순간의 감각적 요소를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정서적으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 작가는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각기 다른 색과 형태를 가진 빛들이 한지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관람객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과 따스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영 작가는 학부에서 조소를 전공 후 한국적인 소재를 찾아 한지로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제20회 대한민국한지대전 현대부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소진영 스튜디오 대표로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춘향선발대회 참가자 내달 31일까지 접수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95회 글로벌춘향제의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2월 1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응모 자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로 지역 제한은 없으며, 희망자는 전주문화방송 홈페이지, 시흥페이지, 춘향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서류심사 결과는 4월 7일 공지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통과자는 4월 12일, 4월 13일 1·2차 예선으로 양일간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고 4월 20일부터 10일간 합숙 과정을 거친 뒤 4월 30일 남원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은 진·선·미·정·숙·현, 특별상과, /남원=김기두 기자



우정상 등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글로벌 축제 자리매김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2위 선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리축제는 11일 전주 관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트랜스글로벌월드뮤직차트(이하 TWMC)는 '2024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 결과를 발표, 전주세계소리축제를 2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WMC는 전 세계 30개국 다양한 매체의 월드뮤직과 민속음악 평론가 50여 명의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음악평론 네트워크로, 이들은 정기적으로 월드뮤직 우수음악 및 축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우수한 음악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소리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음악적 다양성 △신진 아티스트에게 제공하는 기회 △소통 및 정보제공 △관광객 경험 △플류(접근성 및 편안함)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



임 등 7개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며 타 월드뮤직축제와 비교해 탁월한 성과와 배려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TWMC 베스트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소리축제는 이번 선정으로 전통공연예술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축제는 여름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서울, 충청, 강원,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대거 축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교류의 장이 됐다.

소리축제를 찾은 캐나다 출신의 작곡가이자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 창립자(전 감독)인 랜디 레인-투스(Randy Raine-Reusch)는 "전 세계 수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소리축제 같은 축제는 없어 매우 귀하다"며 "소리축제는 한국의 보석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와 한국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의 글로벌을 향한 도약과 성공 사례는 타 공연예술제의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소리축제만의 어젠다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공연예술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국비 8300만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총 8,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순수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 공연

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연극과 전통 예술 장르 총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에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순수예술 콘텐츠를 오는 6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에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펼친다.

선정된 작품은 난버널 코믹 마임극 '장크, 클라운'과 확장현실(XR) 음악극 '네발은 좋고 두발은 나쁘다' 등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국비 8900만원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에서 총 2건의 공연 작품이 선정돼 국비 8,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

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공연 작품은 △뮤지컬 '정글 라이프'와 △발레 '돈키호테'다.

선정된 공연 작품은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중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